

체 I 부 연수보고
第 I 部 研修報告

コミュニケーション

初等教育教員養成課程 理科専攻

2年 宮田 佳代子

韓国ではたくさんの学生と交流しました。

私は韓国に行く前に挨拶ぐらいはできるようにしようと思い、本当に基本的なあいさつだけを勉強しました。韓国へ行くくと日本語がわかる人がとても多くてびっくりしました。訪問した晋州教育大学校の学生も嶺南大学校の学生も、今度日本に留学すると言っていた子はもちろん、日本へ来たことがない人でも日本語をしゃべれる人が多くて、驚きました。また2, 3年前に日本で放送されていた日本のドラマをいろいろ知っていました。一緒に石窟庵や仏国寺にいった嶺南大学校の学生は今度日本に留学すると言っていて、日本語がとてもうまく、会話も日本語でした。時々わからないことばや文法があつてるか不安なときにわたしに聞いてくれたり、持っていた電子辞書で調べたりして本当に一生懸命日本語を勉強してくれていました。しかしたまに言いたいことがうまく日本語で伝えられなくて、私もなかなか理解してあげられなくて残念だったこともありました。そのときその子はごめんね、もっとうまくしゃべれたらいいのに…とっていました。私はそれを聞いたとき、ほんとに申し訳ない気がしました。韓国に来ているのは自分なのに日本語を使うことができ苦労はぜんぜんなくて、逆に嶺南大学校の学生さんが一生懸命日本語を使ってくれていました。自分は来る前に少し挨拶しか学んでこなかったことを後悔しました。行きのバスの中で私が知っているだけの韓国語をその子に披露しました。ほんの少しだったけど、たくさん知っているねと喜んでくれました。このとき日本に帰ったらハングルを勉強しようと決心しました。また、わたしも英会話を習っているので言いたいことがなかなか英語で表現できなくて、相手に言いたいことが伝わらないというもどかしい経験は何回もしてきました。だからこそ、一生懸命日本語を話してくれているので、こちらも一生懸命聞くようにしました。この前この学生さんから電話やメールのやり取りをしました。私は授業で韓国語の授業を始めたので、そのことを伝えました。そしたらすごく喜んでくれてちゃんと勉強初めて良かったなと思いました。

晋州教育大学校で一番仲良くなった学生さんは日本語はあまりわからなくて、私たちも韓国語はできないので、英語で会話をしました。といってもそんなに話せるわけではないのですが、なんとか知っている英単語をならべて気持ちを伝えました。後はとにかく表情です。ことばでは伝わっているのか不安だったので、表情でカバーしました。向こうの学生さんも一生懸命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してくれて、楽しい時間がすごせました。

韓国に初めて行ってみて韓国の人と日本の人にお互いの国に対する認識の差に驚きました。日本でもここ最近レンタルショップでも韓国ドラマのコーナーができたり歌や俳優さんもたくさん知られるようになって来ました。しかし本当にここ2, 3年の話です。だ

から韓国へ行ったとき韓国の人が日本語はもちろん日本のことをたくさん知っていてその差が大きいことをとても残念に思いました。でも、私は韓国に行って韓国が好きになったので本当に良かったと思います。これも韓国でたくさんの人と交流して本当に楽しいときを過ごせたからだと思います。これからもっと韓国語だけではなくそのほかのことにも目を向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した。



커뮤니케이션

초등교육교원양성과정 이과전공
2학년 미야타 카요코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과 친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에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허나 한국에는 일본어를 잘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방문한 진주교육대학교 학생들도, 영남대학교 학생들도, 일본어를 잘 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습니다. 또 2, 3 년전에 일본에서 방송되었던 일본 드라마에 대해 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석굴암과 불국사에 갔었던 영남대학교 학생이 이번에 일본으로 유학온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일본어가 능숙해서, 회화도 일본어로 했습니다. 가끔 어려운 단어나 문법을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전자 사전으로 찾으면서,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 했습니다. 허나 일본어로 잘 표현 되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저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어 유감스러웠습니다. 그 때 그 학생은 일본어를 잘 못하여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저는 참으로 속스러웠 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편히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반대로

영남대학교 학생이 열심히 일본어를 사용해 주었기 때문이 였습니다.한국에 오기 전에 인사말 밖에 배우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돌아오는 버스안에서 저는 이미 배웠던 한국말을 그 학생에게 했습니다.떠들거리며 몇마디만 했는데 너무 잘 한다면서 기뻐해 주었습니다.일본에 돌아가면 한글을 공부하려고 결심했습니다.전번에 그 학생과 전화라든가 메일로 연락 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고 알려 주었더니 몹시 기뻐해 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데 대해 저 자신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제일 친했던 학생은 일본어를 할수 없었고,우리도 한국어를 할 수 없었 기에, 영어로 회화를 했습니다.허나 영어로 회화를 한다는것은 그냥 영어 단어를 생각나는 대로 열거 하는 것이니, 여하튼 중요한것은 표정이 였습니다.언어 장애로 인한 단점을 표정으로 커버했습니다.한국 학생들도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때, 한·일양국간의 인식의 차이에 놀랐습니다.일본에 렌탈 속에 한국 드라마의 코너가 생긴거나, 한국 노래나 배우들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최근 2, 3년간의 일 입니다.한국인들은 일본어는 물론, 일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이렇게 큰 차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나 자신이 이번 방문을 통하여 한국을 좋아하게 된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이것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부터라도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韓国の友達 친구

養護教諭養成課程

2年 南 佑美

言葉の壁はあったとしても、伝えようと思えば、想いや考えは伝わる

5月の晋州教育大学校からの訪問の学生キム・ウンヨンさんを自宅でホストファミリーとして受け入れ、そのときに友達になれたので、ウンヨンさんとの再会も私の個人的なミッションの一つでした。私は彼女と5月のとき一緒にご飯を食べ、私の部屋で一緒に寝て、



お互い片言の英語や日本語、韓国語でたくさん話をしました。ウンヨンさんが日本を離れる前の最後のお別れパーティーのときに、日本語だけで話しかけたのに、意味を理解してくれて答えてくれたので、日本語がわかるようになったんだね！と言ったら、ゆみは目で話すから目を見てればわかるよといってくれました。私はすごく嬉しくなり、少し自信もつきました。また、晋州で再会した時

も元気だった？から始まり、近況報告などたくさん話しました。ホームステイはイ・ヨンジュさんのお宅にお世話になったのですが、ウンヨンさんも、キム・ミンジさんも一緒にヨンジュさんのお宅にホームステイしてくれて、ずっと一緒に行動してくれていました。そして私たちが晋州を離れる最後の日に開いたパーティーの後、連れて行ってもらった韓国茶のお店で本当に楽しい時間を過ごせました、そのときはまるで女子高生のように話しては笑い、時には真剣に教育大学の学生同士、お互いの国の教育について教えあったり、本当にいろいろなことを話し、笑い合いました。こういったいろいろな経験から、言葉の壁は多少あっても、伝えたいという思いがあれば伝わるということを実感し、また、友達を作る、友達になることは難しいことではない。また友達が出来るその喜びは計り知れないものであると感じました。



また会ったり、話たり一緒に遊んだりすることが楽しみです。

저의 소중한 한국 친구

한국 친구

양호교사양성과정
2학년 미나미 유미

언어 장애는 있다고 해도 ,의사를 전하려 마음만 있으면 전해진다.

5 월에 진주 교육대학에서 방문했던 학생 김은영씨를 호스트 가족으로 맞이하여 친구가 되었기에, 은영씨와의 재회도 저의 개인적인 미션의 하나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와 함께 밥을 먹고 저의 방에서 함께 자면서, 서로 서투른 영어나 일본어, 한국어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영씨가 일본을 떠나기전에 마지막 작별 파티에서 아무것도 생각지않고 일본어로 말을 건넸더니, 뜻을 바로 이해하고 대답해 준것에 대해 <<이젠 일본어를 잘 알잔니?>> 라고 했더니 ,<<유미는 눈으로 말하니까 눈을 보면 알아>>라고 하는 것이 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조금은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진주에서 재회 했을때도 <<건강해?>> 라는 인사말 부터 시작하여 최근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홈스테이는 이영주씨 집에서 했었지만 김은영씨와 김민지씨도 함께 영주씨 집에서 함께 홈스테이 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주를 떠나는 마지막 날에 열린 파티가 끝난 뒤에 함께 갔던 한국 찻집에서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일본 여중고학생 같이 수줍음도 모르고 가끔씩 큰소리로 웃고 떠들어 대면서 재미나게 이야기 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간의 나라 교육에 대해 논하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경험으로부터 언어 장애는 있어도 , 전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전해진다는 것을 실감했고 , 또한 친구를 사귀고 ,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려운것이 아니고, 친구가 되는 즐거움은 무엇으로도 표현 할 수 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또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기다려 집니다.

サッカー交流

情報教育課程 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コース

2年 松長 拓麻

私をホームステイで迎えてくださった家庭は、晋州教育大学の美術の先生をしておられる李先生宅でした。その李先生の家族構成はお父さんである李先生、小学校の先生をしておられる奥さん、大学に通っている二人の息子です。その息子のうち、次男が晋州教育大学に通っている、私と同年の Ji-Hoon でした。

その Ji-Hoon の誘いで、私は韓国のサッカーの大会に参加するというほかではできない体験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参加というのはプレーヤーとしてです。日本でもしばしばサッカーの大会に参加していますが、日本とは違った点をいくつか発見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まず、開会式でそれが見受けられました。公式戦を除いて、日本でのサッカーの大会の開会式はルール説明や注意などを言うだけで、ただ淡々と終わってしまいます。それでは違う点を挙げていきます。

一つ目に、軍歌斉唱があることです。韓国では兵役があります。だから成人男性はみんな軍歌を知っているのです。日本でも公式戦では歌を歌うことがあります。しかし、それは国歌の斉唱です。「君が代」です。その様子でも違う点がありました。日本では高等学校の入学式同様、君が代を歌うときもただ音楽が流れるだけに近い状態になっています。しかし韓国では皆が大きな声で真剣に歌っていました。そこに文化というか民族の違いな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感じました。

二つ目に、開会の挨拶の際の話を聞く態度です。日本では、人が前に出てきて話を聞くとき、顔を見て話すのが普通です。しかし、韓国では皆が下を見て目をつぶりながら話を聞くのです。文化が違うから、礼儀も違うのだと思います。

三つ目は試合中に発見できた点です。サッカーでは試合中に水分補給のため、ペットボトルなどに水を入れてそれを飲みます。日本ではそれを飲むときは口をつけて飲むのが当たり前ののですが、韓国ではそれがありません。韓国の人にどうして？というふうに聞いたのですが、それが当たり前になっているという答えが返ってきました。それもきっと文化なのでしょう。

ここからは日本と同じ点についてです。いざ試合が始まったら韓国も日本も同じでした。「パス」「シュート」などの単語やルールはもちろん同じです。また、私は韓国語を話すことができませんが、スポーツを通じて意思を通じ合わせることができましたと思います。

このサッカーを通じた国際交流によって、スポーツというものは、言葉の壁を越え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うちのひとつだと身をもって感じてきました。

축구 교류

정보교육과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코스

2학년 마즈나가 타쿠마

나를 홈스테이로 맞이해 준 가정은, 진주 교육대학 미술전공이신 이쌍재교수님 덕이 있습니다.이교수님의 가족분들로는 아버지인 이교수님,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근무하시는 사모님, 대학에 다니고 있는 두 아드님입니다.둘째 아들인 지훈이는 나와 동갑으로 진주 교육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권유로, 나는 한국에서 축구 대회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참가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어로서 입니다. 일본에서도 자주 축구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일본과는 다른 점들을 발견 하였습니다.

우선, 개막식에서 다른점을 느꼈습니다.공식전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축구 대회의 개막식은 룰 설명이나 주의 사항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간단하게 끝나 버립니다.아래에 그 다른 점들에 대해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군가 제창이 있는 것입니다.한국에는 병역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성인 남성은 모두 군가를 알고 있었습니다.일본에서도 공식전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국가인 <<키미가요(일본국가)>>의 제창입니다.진행되는 형식에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일본에서는 고등학교의 입학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연주되는데 단지 몇 곡 만이 연주될 정도 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열심이 부르고 있었습니다.여기에서 ‘문화차이라고 할까? 민족 차이가 아닐까?’ 라고 느꼈습니다.

둘째로,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듣는 태도입니다.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할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러나, 한국에서는 듣는 분들은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연설를 듣습니다.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의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시합중에서 느꼈습니다.축구에서는 시합중에 수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패트병 등에 넣은 물을 마십니다.일본에서는 마실 때는 입을 대어 마시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한국 분에게 왜냐고 물었더니 이유를 논할 여지도 없이 그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문화차이 겠지요.

그럼 아래는 같은 점에 대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막상 시합이 시작되면 한국이나 일본은 같았습니다.<<패스>> <<슛>> 등의 단어나 룰은 물론 같았습니다.또, 나는 한국어를 할 수 없었지만, 스포츠를 통해 의사를 서로 표달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통한 국제 교류에서, 스포츠라는 것은, 언어 장벽을 넘은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晋州教育大学校の学生とのふれあい

中等教育教員養成課程 英語専攻

4年 渡邊 絵梨奈

今、この韓国研修を振り返ってみて感じることは、晋州教育大学校のみなさんには本当にお世話になり、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ということです。私はこの研修で同じ目標を持った友達を作り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先生方をはじめ、たくさんの学生さんと触れ合える機会が持てたことにとっても感謝しています。

私は韓国に行くのはこの研修が初めてで、韓国語も話すことはできないし、ホームステイも初めての経験だったので、不安な面も多くありました。しかし、私の不安を和らげてくれたのは晋州教育大学校の先生と学生さんでした。私はイム先生のお宅にホームステイしました。先生は日本語を少し話すことができるので、不安も少しなくなりましたが、何よりも先生の人柄に助けられたと思います。先生はいつも笑顔で話しかけてくれて、韓国語の分からない私に一生懸命日本語を使って話してくれました。先生の家族の方もとても親切で、奥さまは毎日美味しい料理をご馳走してくれました。小学校3年生のソヨンと4歳のスービンという娘さんとも一緒にゲームをしたりして遊びました。奥さまや娘さんは日本語があまり分からないので、先生や晋州教育大学校の学生さんや留学生の方に通訳してもらいました。晋州教育大学校の学生さんには私たちが韓国にいる間ずっと援助してもらい、ホームステイ中も夜遅くまで一緒に過ごし、韓国の文化を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初めは言葉の壁に戸惑うこともありましたが、最後は家族のみなさんとも言葉が分からなくても、身振り手振りで伝え合うことができました。

ホームステイ最後の夜にイム先生が顧問をされているバレーボール部員の学生さんとも交流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家族のみなさんと食事をし、ソヨンと岡村さんと三人で前夜ソヨンに教えてもらったゲームをしていると、部員の学生さんたちも一緒にゲーム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韓国の男性はとても面白くて明るくて、よく話をしてくれると感じました。お酒を飲んでいたせいもあるとは思いますが、私たちは子どものようにはしゃいで、笑って、とても楽しいときを過ごしました。その中で一人の学生さんと、好きな歌手の話や、韓国のこと、日本のこと、学校生活のことを話しました。彼は私と同じ年ですが、兵役に行っていたので今は大学二年生でした。最後にお互いの夢について話しました。お互い教師になりた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帰り際に彼が、君はいい教師になれると思うよ、と言ってくれたことが何よりも嬉しかったです。私も彼は絶対にいい教師になれると思ったので同じ言葉を彼に送りました。同じ夢を持った学生さんと話をす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よい経験になりました。この韓国研修を通して、私はよい出会いをたくさんしたと改めて感じました。晋州教育大学校の先生方、学生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お会いできる日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진주교육대학교 학생들과의 만남

중등교육교원양성과정 영어전공

4 학년 와타나베 에리나

이번 한국 연수에서 진주교육대학교 여러 분들께 많은 신세를 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번 연수를 통하여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를 사귀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이 이번이 처음이 였고, 한국어도 할 수 없었고, 홈스테이도 처음으로 체험하는지라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주 교육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로 부터 많은 안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임교수님 덕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임교수님은 일본어를 할 수 있으셔서 조금은 안심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교수님의 상냥함에 감동했습니다. 교수님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고, 한국어를 모르는 저한테 열심히 일본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가족분들도 매우 친절했고, 사모님은 매일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 학년에 다니는 따님 소영이랑 4 살 된 따님 수빈랑과 함께 게임을 하며 놀았습니다. 사모님과 따님들과는 일본어가 잘 통하지 않아, 교수님이나 진주교육대학교 학생들과 유학생들의 통역을 받았습니다. 진주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매일 함께하였고, 홈스테이 할 때도 밤 늦게까지 함께 하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긴장했지만, 친해진후 가족 여러분들과 손짓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홈스테이 마지막 날 저녁에 임중은교수님이 고문으로 계시는 배구부 부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가족분들과 식사를 함께 한뒤, 소영이랑 오카무라 셋이서 어젯밤 소영이가 가르쳐 준 게임을 하자, 부원들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학생들은 너무 재미있었고, 밝고, 말도 잘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재미나서 우리들은 아이들처럼 웃고 떠들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좋아하는 가수, 한국과 일본에 대해, 그리고 학교 생활등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나와 동갑이 였지만 병역으로 인해 대학교 2 학년생이 였습니다. 서로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교사가 되려는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어질때 그는 나한테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기뻐고, 그애 한테도 훌륭한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친구와의 만남이 되어 기뻐합니다.

이번 한국 연수를 통하여, 많은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주교육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晋州教育大学校の大学祭

初等教育教員養成課程 理科専攻

2年 清水 梨沙

私は、晋州教育大学校での大学祭を見て感じたことについて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私達が韓国研修に行った時、晋州教育大学校は大学祭の期間でした。韓国の大学祭は、日本とは異なり昼より夜がメインでした。飾りつけなどは、日本の大学祭とほとんど同じ雰囲気だと感じました。私のホームステイ先は孔先生のお宅だったので、津田さんのホームステイ先の学生、ソヨンさんと孔先生がお忙しい中、一緒に行動してくださいました。

6日、夜の大学祭に行きました。カラオケ大会がやっていたので皆で見に行きました。学生だけでなく近所の方もいらしてました。学生の方は、皆歌も踊りもうまくて驚きました。やはり、夜がメインなのでとても活気がありました。また、韓国の学生はお酒が好きということで多くのお酒が模擬店にありました。その中のソヨンさんの後輩がやっているというお店に行き、多くの友達と一緒にお酒やごはんを食べました。学生の方は皆親近感がありとても話しやすかったです。英語でなんと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はかりながら、日本の漫画や芸能人の話などをして、とても楽しい時間を過ごしました。韓国の学生は、日本のことをとても多く知っていることに驚くとともに、自分は韓国についてまだあまり知らないということに気が付きました。もっと韓国について勉強しておけばもっと話ができたと少し後悔しました。

次の日、昼ごろにまた大学祭に行きました。水風船をかべにぶつけるゲームをやりました。そのかべには穴があいていて、その穴に韓国の学生が顔を入れてその学生が水で濡れるように水風船を投げるゲームでした。皆ひとつずつやって、楽しかったです。韓国の大学祭は1・2年生がやり、3年生は自由に行動でき、4年生は図書館などで教授の勉強をしているそうです。この日の夜も、後輩達がやっている模擬店に行きました。この日もとても親しく話しかけてくれ、嬉しかったです。この日は、手作りのチヂミを模擬店でやっていました。

次の日は私達の模擬店、ステージの日でした。ステージ終わった後は、各自自由行動だったので、また津田さんやソヨンさん、宮田さん、土山さんとともに行動しました。9:30から韓国で有名な歌手がステージに来るので、皆で観に行きました。とても盛り上がっていて、楽しかったです。歌詞は韓国語でよく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が、雰囲気を楽しむことができとても良い経験ができてよかったです。

韓国の大学祭は、昼より夜がメインであること、模擬店はお酒が多いこと以外は日本と同じだと思いました。そして、晋州教育大学校の学生さんは私達日本人にとっても親しく話してくれて、一緒に大学祭を楽しむことができ本当に良い経験ができました。

진주교육대학교의 축제

초등교육교원양성과정 리과전공

2학년 시미즈 리사

저는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축제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주교육대학교에 갔을 때, 마침 대학축제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축제는, 일본과는 달리 낮보다 밤이 메인이었습니다. 장식 등은, 일본과 거의 같았습니다. 나는 공교수님택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공영태교수님이 바쁘실때는 친구 쯤다의 홈스테이 학생 서영씨와 함께 했습니다.

6 일날 저녁에 대학축제에 갔었는데 한창 카라오케 대회를 열고있었습니다.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오셨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노래도 춤도 능해서 놀랐습니다. 역시, 밤이 메인이여서 매우 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이 술을 즐기기때문에 가게마다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씨의 후배가 하고 있는 가게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두들 열정적이어서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될수록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일본의 만화나 연예인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많은것을 알고 있는데 대해 놀랐고, 한국에 대해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날, 점심때에 대학축제에 갔습니다. 물이 들어있는 풍선을 벽에 던지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 벽에는 구멍이 나 있는데, 구멍으로 학생이 얼굴을 내밀면 그 학생 얼굴을 향해 물풍선을 던지는 게임이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대학축제는 1·2학년 학생들로 진행되었고, 3학년은 자유타임이였으며 4학년 학생들은 도서관 등 곳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도, 후배들이 열고 있는 가게에 갔습니다. 이 날도 재미나게 이야기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수 만든 지지미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우리들이 가게를 여는 날이고, 스테이지에 오르는 날이였습니다. 스테이지가 끝난 후는 자유 타임이였으므로, 또 여러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9시 30분부터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스테이지에 오르므로, 모두들 보러 갔습니다. 매우 분위기가 좋아, 즐거웠습니다. 가사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흥성흥성한 분위기에 즐거웠습니다. 매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보다더 흥성거리는 한국 대학축제는 술을 판매하는 외에 일본과 비슷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晋州教育大学校での大学祭参加

国際理解教育課程 国際文化コース
2年 太田 奈緒美

模擬店

私たちは晋州教育大学校の大学祭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お昼は模擬店を出し、夜はステージに上がりました。韓国の大学祭は夜が本番なので昼間はほとんど学生達が見当たりません。夜遅くまでお酒を飲んで騒ぐのでお昼まで寝ているそうです。

模擬店では玉せんとう文字せんのお店を出しました。玉せんはせんべいの中に目玉焼きとお好みソース、マヨネーズをはさんだもので、文字せんはせんべいに醤油で絵や字を書き、青海苔をまぶしてはらい、書いた部分だけ青海苔が浮き上がるといったものです。これらは材料がすぐにそろい、手間がかかりませんでした。去年の先輩方がお好み焼きのお店を出した時、お好みソースが好評だったようなので、味も韓国人に好ま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た。また、お酒をよく飲む韓国の学生にとっておつまみ程度の軽いものは喜ば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た。実際お店は大繁盛で、途中で卵を買い足しに行ったほどでした。学生達が大勢並んでくれて、私達は積極的に話しかけました。皆、マシッソヨ!!（「おいしい」という意味）と言いながら本当においしそうに食べてくれて、とても嬉しくなりました。値段が安かったのもあって全て完売でした。なにより、皆が積極的になって、たくさん先生方や生徒さんたちと交流出来たことが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



ステージ

ステージでは、一人ずつ韓国語で簡単な自己紹介をしてから、皆で歌を歌いました。自己紹介は緊張しましたが、あんなにたくさんの人の前で話すのは久しぶりで気持ちよかったです。韓国の学生さんはノリがよく、私たちの話すこと全てに反応してくれるので嬉しかったです。日本で10年程前にはやった「世界中の誰よりきっと」が、その頃韓国でカバーされて人気があったので、私たちは日本語で歌うことにしました。また、日本語だと歌詞の意味が分からないので、見て楽しめるように踊りもつけることになりました。踊りは苦手なので不安だったけど、ステージに立ったら楽しくて楽しくて、私は全然踊れなくて失敗だらけだったけど最後まで笑顔で乗り切ることが出来ました。晋州の学生達もノリノリで私達と一緒に歌って踊ってくれました。会場中が一つになり、本当に心から楽しむことが出来ました。

まとめ

学校祭の盛り上がり、学生達の熱気が愛教大と全然違って驚きました。晋州教育大学校の学祭と比べて、愛教大の学祭は冷めているように感じました。

機会があったら是非また晋州の学祭に参加したいです。次はもっと韓国語で会話が出来たらと思います。春には愛教大に晋州の学生達が来てくれるので、再会出来るのが今から楽しみです。今までよりももっと積極的に交流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



진주교육대학교에서의 축제 참가

국제이해교육과정 국제문화코스

2학년 오타 나오미

가게

우리는 진주 교육대학교 대학축제에 참가했다. 오후에 가게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스테이지에 올랐다. 대학축제는 저녁부터 흥성거리기 시작한다. 낮에는 거의 학생들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 이다. 밤 늦게 까지 술을 마시며 놀고, 점심때까지는 잠 잔다고 한다.

가게에서 <<다마 센>>과 <<모지 센>>을 만들었다.<<다마 센>>은, 센베이 사이에 달걀 후라이와 오코노미 소스, 마요네즈를 뿌린 것이다. <<모지 센>>은, 센베이에 붓에 간장을 묻혀 그림이나 글자를 쓴뒤 인차 김가루를 묻친다.그러면 쓴 부분에 김이 묻어나 형태가 나타난다.재료가 쉽게 준비 될수 있어, 시간이 들지 않았다. 작년 선배들이 <<오코노미야키>>를 만들었는데 오코노미 소스가 호평 받았다고 하니 <<다마센>>, <<모지센>>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또, 술을 잘 하는 한국 학생에게 , 안주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게는 시작해서부터 붐비었고, 도중에 재료 사러 가기도 했었다.많은 학생들이 들려 주어,우리들은 적극적으로 말을 건넬수가 있었다. 모두들 << 맛있어요>>라고 하면서 맛나게 먹어서 기뻐다. 맛있고 싸서 인지 모두 다 팔렸다.무엇보다도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교류할수 있어 기뻐다.

스테이지

스테이지에서 한국어로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긴장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래간만인지라 기분이 좋았다. 한국 학생들은 잘 맞추어 주어 기뻐다. 10 년전의 일본 노래 << 세상 누구보다도 더 >>이라는 노래가 한창 한국에서 커버되어 인기를 끌고 있었기에 우리들은 일본어로 노래하기로 했다.또한 일본어로서만이 아니라 모두가 즐길수 있도록 춤도 추었다. 춤은 서툴렀지만, 스테이지에 서니, 흥이 나서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너무 긴장하여 많은 실수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로 할수가 있었다. 진주의 학생들도 우리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 추었다. 회장안은 모두 하나가 되어 마음껏 즐겼다.

학교축제의 분위기와, 학생들의 열정이 우리 대학교와 전혀 다른데 대해 놀랐다.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축제가 너무나 조용한것 같다.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축제에 참가하고 싶다.다음번에는 좀 더 한국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올해 봄에 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린다. 지금 보다도 더 적극적인 교류를 가지고 싶다.



嶺南大学校 Yeungnam University

初等教育教員養成課程 算数専攻

2年 土山 真有美

嶺南大学校は韓国で2番目に大きなキャンパスをもち、キャンパス内には図書館、歴史博物館、サッカーコートまである広さです。

	嶺南大学校（韓国）	愛知教育大学（日本）
場所	釜山まで鉄道で約1時間の慶山市	名古屋まで鉄道・バスで約1時間の刈谷市
学生数	約25,000人 (学部学生：約22,000人、 大学院生：約3,000人)	約4,000人
日本語（韓国人学生）・韓国語（日本人学生）専攻人数	中国・日本語文学科の中に日本語・日本文学専攻があり、なんと約120人もの学生が日本語を学習しています。	希望者が韓国語の授業を受講していたり、韓国文化を学ぶための授業を選択しています。

今回の旅行での私にとって一番の目標は沢山の友達を作ることでした。興味を持ち始めた韓国で友達が出来たら、きつともっと韓国のことを理解できるだろうと思ったのです。嶺南大学校での交流は、そのための絶好のチャンスとなりました。このときの交流は、たくさんの学生さんが参加してくださり、1対1でじっくり交流できました。一緒に慶州の歴史名所をまわりながら色々な話をし、韓国と日本で同じ部分、違う部分を話し合ったりしながらお互いを理解していきました。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

私と行動を共にした嶺南大学校の友達は、嶺南大学校で日本文学を専攻していました。日本の古代文学～現代文学まで幅広く学んでいるようで、日本の文学に関する知識はきっと日本人の私以上だったろうと思います。「何故日本文学を専攻しているの？」という私の問いに「日本にはいいところが沢山あるので見習いたい」と言ってくれました。

このように嶺南大学校で私たちを迎えてくれた学生さん達はみんな日本に好意的で、日本人のことをそんなに嫌っていないのだなと感じました。韓国へ行く前のイメージでは、きっと歴史など、様々な背景から日本に良い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人は少ないだろうと思っていたので、日本の事を学んでくれている人がそんなにもいることが、嬉しかったです。

もうひとつ韓国に行って感じた事があります。それは韓国の人は意外と恋愛に対してオープンなんだなという事です。私のペアは「マユミは彼氏いますか？」と唐突に質問し、「私はいるんですよ。」と堂々と言っていました。そのオープンな様子に初め少し戸惑いました。

日本では初対面の人いきなりそんな事は聞かないし、自分の事も聞かれないと話さない事が多いと思います。しかし嶺南大学校の友達は自分の彼氏をものすごく褒めるし、馴れ初めを話してくれたりしました。いつも何処に行くかとか、何をして遊ぶ事が多いだとか、日本人だったら、恥ずかしくて言わないであろう事を、普通に話している姿に少しだけカルチャーショックを感じました。こんなにもオープンな恋愛観に少しだけ羨ましさを感じました。

嶺南大学校の学生さん達とは慶州の歴史名所を巡ったのですが、建物等の歴史的背景を学生がよく知っていたことにも驚きました。これは歴史を重んじる韓国人の思考の結果なのかなと思います。他の日本人の友達も同じような事を感じたようです。

こんな風に様々な違いや似た点を感じながら交流をしていきました。今回参加してくれた嶺南大学校の学生さんは後に日本に留学する予定の学生さんが多くて、今日本に来ているという学生さんが多いです。そして、日本で再会する約束をしている人も少なくありません。私も静岡に来ている、慶州でお世話になった友達に会いに行くつもりです。

영남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초등교육교원양성과정 산수전공

2 학년 츠치야마 마유미

영남대학교은 한국에서 2 번째로 큰 캠퍼스입니다. 캠퍼스내에는 도서관, 역사 박물관, 축구 코트까지 있었습니다. 매우 넓었습니다.

	영남 대학교(한국)	아이치 교육 대학(일본)
장소	부산까지 전차로 약 1 시간 (경산시)	나고야까지 전차로 약 1 시간 (카리야시)
학생수	약 25,000 명 (학부 학생 : 약 22,000 명, 대학원생 : 약 3,000 명)	약 4,000 명
일본어(한국인 학생)· 한국어(일본인 학생) 전공의 재학생수	중국·일본어 문학과에 일본어·일본문학 전공이 있고 약 120 명 학생이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다.	흥미에 따라 한국어 수업을 보거나 한국 문화 수업을 선택하고 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있어서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친구를 통하여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대학교에서의 교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류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1 대 1 로서 충분한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모두들 함께 경주의 역사 명승고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같은 점이나, 다른 점에 대해 서로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나와 함께 한 영남대학교의 친구는, 영남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일본의 고대문학-현대문학까지를 폭넓게 배우고 있었습니다.일본의 문학에 관한 지식은 나를 능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왜 일본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일본은 우수한 것들이 많기에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맞이해 준 영남대학교 학생들은 모두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었습니다. 일본인을 싫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습니다.역사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이 없을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일본에 대해 많은 것을 요해한 한국분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한국에서 또 하나 새롭게 느낀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생각밖으로 연애에 대해 개방적이 라는 것입니다.나와 함께 한 친구는 <<마유미씨는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저는 << 있습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그의 개방적인 행동에 조금은 당황했습니다.일본에서는 첫 대면에 그런 일을 묻지 않고 ,또한 자기 자신의 일도 스스로없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보통 입니다.그러나 영남대학교의 친구는 자기의 남자친구도 몹시 자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사연에 대해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데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일본인이란,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그것을 스스로없이 이야기하는데 대해 조금은 놀랐습니다.

영남 대학교 학생들은 참관한 역사 명승고적 건물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대해 놀랐습니다.이는 한국인이 역사를 존중하기 때문이 아닐까고 생각합니다. 이번 함께 했던 영남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일본에 유학하러 올 예정의 학생이 많았습니다.하여 일본에서의 재회를 약속했습니다.그때 나와 함께 했던 친구는 지금 일본 시즈오카에 와있다고 하니, 그 친구도 만나볼 예정입니다.



こどもたちとの触れ合い

初等教育教員養成課程 理科専攻

2年 津田 紘子

附設小学校で私たちは子供たちとともに給食を食べさせてもらいました。相手が小学生ということで、かなり簡単な英語しか伝わらず、はじめはどうやっ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っていいのかわからず、戸惑ってしまいました。私がドキドキしながら食事していると子供たちのうちの一人が、突然私のお皿のほうを指差し、首を振っていました。私は、どうしたの？と思ってその子の方を見ていると、どうやら私の箸とスプーンの使い方正しくないということを訴えているんだとわかりました。このことで、少し私の緊張も緩んで安心しました。しかし、もっと何とかして子供たちと話がしたいと思って、覚えてばかりの韓国語”マシッソヨ？”（日本語でいう”おいしい？”）と聞いてみたり、子供たちでも分かりそうな簡単な英単語を並べて話しかけていました。そのように接しているうちに、私からだけでなく、逆に子供たちの方から私の持っていた韓国語のガイドブックを使って問題を出してきてくれました。「本の日本語訳の部分を私が見て韓国語でなんと読むか私が発音する」というクイズ形式で行われ、あつていればみんなで褒めてくれて間違っていれば笑いながら正しい表現を教えてくれるというものでしたが、これで一気に子供たちとの距離が縮まった気がして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だんだん子どもたちが心を開いてきてくれているというのを短い時間で感じる事ができて私は幸せでした。きっと子供たちも私の性格や中身がすこし見えてきたからだと思いますが、クイズの後はいくすぐりあいが始まって、私一人対子供たち10人ほどの対決だったのでとても大変でした。私は、彼女たちが私と出会って、短い時間でしたが交流をして、日本人を、日本を今までよりもっと近い存在として感じてくれていれば嬉しいです。

この給食のとき私は一人の女の子と出会いました。その子は、始めはとてもおとなしくて照れていたのなかなか話してくれませんでした。しかし、食事が終わる頃には、私にとりもなついてくれて一緒に給食の片づけを手伝ってくれました。お別れのときは抱きついてきてくれて、嬉しくて涙が出そうでした。次の日、私が晋州教育大学校にホームステイ先の子と歩いて向かっていると、偶然再会したのです。彼女は、私を見つけるなりすぐ笑顔になって駆け寄ってきてくれました。前日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手段が限られていましたが、この日はホームステイ先の子がいたので、少し通訳をしてもらってお互いの気持ちを正確に伝えあうことができました。大学祭の私たちの模擬店にも買いにきてくれて、私のなかで彼女は忘れられない人の一人となりました。私は、言葉の壁があったら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ることは難しいのではないかと心のどこかで思っていました。しかし、この研修で、実際自分がその状況を体験してみて分かったことは、言葉が通じなくたっ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いくらでも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言葉というのは、手段

の一つであって、他にも方法はいくつでもあります。

教育設備について

私が今回の研修で、附設小学校と一般の小学校を見学させてもらって、最も驚いたことの一つに、小学校の教育に関する設備がとても充実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ます。例えば、理科室にはたくさんのモデルや薬品、実験道具がそろっていたうえに、実験台の形はテーブルの生徒みんなが実験をよく観察できるように半円形をしていました。廊下には“English Space”という場所があって、子供たちが自由に英語に触れ合えるような工夫がされていました。また図書室には DVD をみんなで鑑賞できる装置がありました。また、各教室にはそれぞれ 1 台ずつ大きなテレビがあり、それを使って授業を進めているクラスも多かったです。学校専用のバスもありました。保健室は、部屋の半分が保健の授業ができるように黒板と机、椅子がありました。また、私たちが、見学した小学校は発明家教育というものに力を入れていて、その小学校には発明の部屋があって、そこには子供たちが発明した作品や発明を行う道具などがそろっていました。私は自分が小学生のときの日本の小学校しか知らなかったので、韓国は教育に関してとても頑張っていると思いました。しかし、最近日本も各教室にパソコンを設置したり、英語を取り入れてみたり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帰ってきてから調べてみて詳しく知りました。今回の韓国研修では、もちろん韓国の教育や施設について学んだことはたくさんありますが、それに加えて自分の国日本の教育についても知るとてもいい機会となりました。

아이들과의 만남

초등교육교원양성과정 리과전공

2학년 즈다 히로코

진주부설초등학교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초등 학생들이어서 간단한 영어만 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지 몰라 긴장했습니다. 조심조심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어린이가 갑자기 저의 접시를 가르키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영문을 몰라 그 아이를 보니까, 젓가락과 스푼 사용법이 어색하다는 것이 었습니다. 이것으로, 조금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금방 배운 한국어로 <<맛있어?>>라고 묻거나, 간단한 영어단어로 말을 건넵니다. 이러한 사이에 나부터가 아니라 아이들도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어 가이드 북을 이용하여 여러가지를 물었습니다. 가이드 북에 쓰여진 한글을 정확하게 읽으면 모두들 칭찬 해주었고, 틀리려는 우습다고 웃으면서 올바르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아이들과 친해져 몹시 기쁩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친하게 되어 행복감마저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저에 대해 조금은 료해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간질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서 무려 열명 이나되는

아이들팀의 대결로 굉장했습니다.저는, 이런 짧은 만남속 에서 아이들이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지금까지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때 점심을 같이 먹었던 한 아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처음에 그 여자애는 수줍었는지 어른스러웠고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니다.그러나, 식사가 끝날 무렵에, 저한테 말도 하고 ,식기 정리도 도와 주었습니다.헤어질때 저 한테 안겼습니다.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 습니다.다음날 , 진주교육대학교 정원에서 홈스테이 아이와 산보하고 있을때 우연히 그애하고 만났습니니다.그애는 나를 알아보고 웃으면서 달려 왔습니니다.전날에는 서로의 의사가 잘 전달 되지 않았지만 그날에는 홈스테이 아이가 통역해주어 서로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니다.대학축제때도 우리의 가게에 사러 왔습니니다.참으로 귀엽고 인상적인 아이 였습니니다.이번 교류를 통하여 언어가 장애가 아님을 심심히 느꼈습니니다. 실제 체험을 통하여 언어 만으로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달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니다.

교육시설에 대하여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와 산천초등학교를 견학하면서 제일 인상적이 었던것은 교학설비 였습니니다. 예를 들면 이과실에 많은 모델과 약품, 실험 도구가 갖추어져 있었고, 실험대는, 테이블 학생들이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반원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니다.복도에는 "English Space"라고 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자유롭게 영어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니다.또, 도서실에는 DVD 도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니다. 교실에는 큰 텔레비전이 한대씩 설치되어 있어, 그것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니다.학생들을 위한 전문용 버스도 있었습니니다.보건실은, 절반은 보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흑판과 책상, 걸상이 있었습니니다.또, 산천초등학교는 발명가 교육에 힘 쓰고 있었습니니다. 그 초등학교에는 발명교실이 있었고, 거기에는 아이들의 발명한 작품이나 발명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니다.저는 필업했던 초등학교와의 차이에서 일본 보다 한국에서 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니다.그러나, 일본에 돌아와서 조사해보니,최근 일본에서도 각 교실에 PC 를 설치하거나 영어를 도입 하면서 힘쓰고 있었습니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한국 교육과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일본 교육에 대해 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니다.



小学生との触れ合い

国際理解教育課程 日本語教育コース

2年 川端 美帆

この韓国研修では、2校もの小学校に訪問させていただき、授業の形式やカリキュラム、また施設などを見学し、日韓の相違点を発見できたのと同時に、小学生と触れ合えたことがとても貴重な体験となりました。

まず私は、韓国の小学生はとても素直で、好奇心が旺盛で積極的だと思いました。廊下ですれ違った時には「こんにちは」と日本語で挨拶をしてくれたり、一緒に給食を食べた時にも、知っている日本人の名前や単語を話してくれたりしました。

公立の小学校で日本の遊びを教え、楽しんでもらった後、日本人への質問タイムがありました。私の日本での今までの学校生活の中で、質問というとほとんど手を挙げる人がお



らず、静かになってしまうことがよくありました。そこで、担任の先生が「質問はありますか？」と小学生に尋ねたときに私は、シーンとなってしまったらどうしよう、という不安がよぎりました。しかしこの不安はすぐに消え去り、多くの子どもが目を輝かせて質問をしてくれたことにとっても感動しました。

この質問タイムだけではなく、道徳などの授業中にも、どのクラスもほぼ全員が挙手をして、自分の考え

を発表している様子を見て、日本人が学ぶべき点が多くあると感じました。

また、3、4年生の子どもでも、多くの子が日韓の竹島問題について知っていて、会話に出てきたことにはとても驚きました。日本では、大人でさえも竹島問題についてよく知らず、それほど関心もないように思われます。

韓国の小学生と触れ合うことで、韓国はもちろん、日本についても多くのことを考え直すよい機会となりました。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만남

국제이해교육과정 일본어교육코스

2학년 가와바타 미호

이번 한국 연수에서, 두 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수업 형식이나 커리큘럼, 학교 시설등에 대한, 일·한 사이에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초등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는, 한국 초등 학생들은 매우 솔직하고, 호기심이 왕성하고 적극적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복도에서 스쳐지나갈 때에 <<콘니찌와>> 라고 일본어로 인사를 해주거나 함께 급식을 먹을 때에도, 알고 있는 일본인의 이름이나 단어를 이야기해주거나 했습니다.

공립의 초등학교에서 일본 놀이를 가르친 후, 우리들 한테 질문하는 타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다녀온 학교 생활에서, 질문이라고 하면 거의 손을 드는 학생이 없이 조용히 되어 버리는것이 보통이 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질문 할 어린이?>>라고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에 나는 침묵이 흐르면 어찌나 하고 근심 했습니다.그러나 이런 근심은 필요 없었습니다. 많은 아이가 적극적으로 흥미진지하게 질문을 해 준것에 대해 매우 감동 했습니다.

이 질문 타임 만이 아니라, 도덕등 수업중에도, 어느 반이든 거의 모두가 손을 들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일본 학생들이 따라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또, 3, 4학년생의 많은 아이들이 일한 타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화제가 되었던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른조차 타케시마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만큼 관심도 없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초등 학생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山清小学校での授業体験

国際理解教育課程 日本語教育コース
2年 神谷 祐代

山清小学校は、晋州からバスで30分ほど行ったところにあり、1908年に創立されました。全校生徒は男子283人、女子271人、計554人です。また、この小学校は特殊教育をしていて、その中でも特に発明家教育に力を注いでいます。発明室という子どもが考えついた生活に役立つアイデアを形にするための教室が設けられており、この教室で子供達は、独創的な便利グッズを発明しています。私達は、この山清小学校の4年生のクラスで福笑い、剣玉、折り紙の3つにわかれて授業をしました。私は、他の学生3人と折り紙の授業をしました。



最初に子供達が私達に日本のことを質問する時間を設けました。子供達は積極的に手を挙げ、次々と質問してくれましたが、「日本のおいしい食べ物は何ですか?」というよくある質問から「日本の台風の被害状況はどうですか?」という小学校4年生とは思えない質問もあり、驚くと同時に感心しました。

次に、私達は千代紙を使って“くるくる蝶々”の折り方を子供達に教えました。“くるくる蝶々”は、紙飛行機のように飛ばして遊び、きれいにくるくる回りながら落ちるものです。韓国に千代紙はないらしく、千代紙を配るとみんな嬉しそうでした。黒板の前に立ち、大きな画用紙で実際に作るのを見せながら子供達と一緒に作りました。子供達は千代紙を配った時から興味津々の様子で、真剣に取り組んでいました。作り終えた後も、みんな夢中で遊んでいました。

授業の最後には、千代紙、いろいろな折り方が書いてある紙、そして千代紙で作った“かえ



る”や“手裏剣”をプレゼントすると、とても喜んでくれました。人前で授業をするのは、初めての体験だったのでとても不安でしたが、子供達は日本に関心があったようで、私達を快く受け入れてくれました。このような小さな国際交流の芽が将来大きなものに育っていったらいいなと思いました。

산청초등학교에서의 수업체험

국제이해교육과정 일본어교육코스

2학년 가미야 사치요

산청초등학교는 진주에서 버스로 약 30 분 정도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1908 년에 창립된 이 학교에는 현재 남학생 283 명, 여학생 271 명으로서 합계 554 명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특수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중에서도 특히 발명교육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상 생활에 도움이 될수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조립 하기 위한 교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실에서 아이들은, 독창적인 생활편리품들을 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산청초등학교의 4 학년 각 학급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학생 3 명과 종이접기 수업을 했습니다. 다른 학급에서는, 복웃음과 죽방울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일본에 관해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질문해 주었습니다. <<일본의 맛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든가 , <<일본의 태풍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 라는 초등학교 4 학년 학생으로서는 너무도 어른스러운 질문도 있어, 놀람과 동시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은 일본에서 <<빙글빙글 나비들>>이라고 하는 종이접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빙글빙글 나비들>> 을 하늘을 향해 던지면, 예쁘게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대지>>라는 수공용 색종이를 나눠주자 모두 처음 보는지라 기뻐 했습니다. 교단에서, 큰 도화지로 실제로 만들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수공용 색종이를 받았을 때 흥미진진해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난 뒤에 하늘을 향해 던지고 재미나해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뒤, 수공용 색종이, 만든 <<개구리>> ,<<검>> 을 선물 했습니다. 모두들 매우 기뻐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처음인지라 매우 긴장했으나 아이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어,고마웠습니다. 이러한 작은 국제 교류의 싹이 움터 멀지 않는 장래 큰 나무로 자랐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温泉でのできごと

国際理解教育課程 日本語教育コース

2年 川端 美帆

3日目の午後には、民族村と温泉の二手に分かれて、それぞれを楽しみました。私は、韓国にも温泉があるということへの驚きと、韓国の温泉がどのようなものかと興味が沸いたことから、温泉に行くことにし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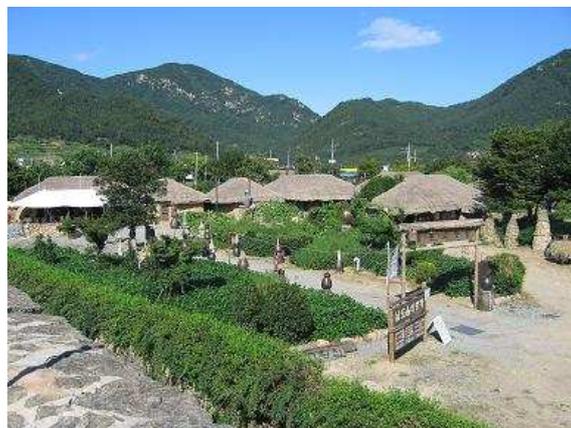
まず、更衣室は日本と変わり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売店にあかすりタオルがあったことは、韓国ならではの光景だと感じました。温泉は、熱いお湯やぬるま湯、プールのような水風呂、ヨモギ湯、お茶の湯など、さまざまな種類のものがありました。

私たちが体を洗い流し、異国での温泉にわくわくしながら浸かっていたところ、先に入っていた韓国のおばさん集団が、すごい剣幕で私たちに何度も何かを言ってきました。私たちはおばさんたちが何と言っているのか理解できなかつたため、困った顔をしていると、今度は身振り手振りで激しく何かを伝えてきました。そこで、それは「髪を洗ってから浴槽に入れ」ということだと分かりました。私たちは皆、髪がお湯につかないように括っていたし、その後の予定もあり髪を濡らしたくはなかつたが、一人の優しいおばさんがシャンプーを貸してくださったため、洗うことにしました。

洗髪後は、それまで怖かったおばさんたちも優しく接してくださいました。100℃のサウナに入った時には、あまりにも暑くて息が苦しく騒いでいたところ、ジェスチャーで「90℃の方がいいよ」と教えてもらいました。また、90℃のサウナに入った時にも、イスが熱くなっていたので水をかけて冷やしてくれたり、冷たいコーヒーを勧めてくれたりと、言葉も通じない見ず知らずの私たちに優しくしていただいて、胸が熱くなりました。いろいろな方が話しかけてくれましたが、韓国語が理解できずに悔しい思いがしました。それでもジェスチャーや片言の言葉で通じた時には、心から嬉しくなりました。

このように温泉では、今回の韓国研修事業とは関わりのない方とも交流することができ、とても有意義で印象に残る時間を過ごすことができました。

もう一方の民族村でも、昔の人々の暮らしや遊びについて肌で触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



온천에서

국제이해교육과정 일본어교육코스

2학년 카와바타 미호

교류 3 일째되는 날 오후, 저희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민속 마을과 온천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온천에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온천이 있다는데 대해 놀랐고, 한국의 온천이 어떠한 것일까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탈의실은 일본과 비슷하였으나, 온천 가게에서 목욕 타올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만이 볼수있는 것입니다. 온천에는, 뜨거운 물 욕조, 미온수 욕조, 풀과 같이 큰 욕조, 요모기 욕조, 차물로 된 욕조 등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샤워를 끝낸뒤, 이국 온천에 몸을 담그 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아줌마들이, 이상한 얼굴표정으로 우리들을 향해 몇번이나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었습니다.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병병 해 있으니까, 이번에는 몸짓 손짓으로 알려 주었습니다. 겨우 우리들은 샴푸를 하고 나서 욕조에 들어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머리카락이 물에 들어가지 않게 끄 하였습니다. 또한, 잠시후의 예정도 있으므로 머리카락을 적시고 싶지는 않았으나, 마음씨 착한 아줌마가 샴푸를 빌려 주어, 샴푸 했습니다.

샴푸를 끝낸 뒤, 여직껏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던 아줌마들도 상냥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100℃의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숨이 막혀 떠들어 댔습니다. 그러자, 제스처어로 90℃가 합당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90℃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에도, 의자가 너무나 뜨거워 앉을수가 없게 되자 물을 끼얹어 차게 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차가운 커피도 권해 주었습니다. 나는, 말도 통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따뜻이 대해 주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냥하게 말을 건네 주었으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갑갑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스처어나 서투른 말로 서로의 의사가 통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온천에서, 이번 한국 연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과 교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이 었습니다.

다른 한 팀은 민속 마을에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이나 놀이에 대해, 흥미 진진하게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韓国での買い物

国際理解教育課程 日本語教育コース

2年 神谷 祐代

1週間の研修旅行の間、私達は様々な所で買い物をしました。韓国のお金は1000ウォン（約100円）からお札になるので、とても裕福な気持ちで買い物ができました。免税店や地下街は日本とあまり変わるところはなく、ハングルで書かれた看板などがなければ、見た目や雰囲気も日本と似ていて、特に地下街は何軒ものお店が連なっていたり、所狭しと商品が置いてあるところが日本と全く一緒でした。



釜山の国際市場は市場といっても普通のお店があり、日本人観光客が多いせいか日本語



の看板があるなど、日本語を話せる人がたくさんいて、なじみやすい所でした。また、食べ物の屋台もあり、日本ではお祭りの時ぐらいにしか見られないので、とてもワクワクしました。特に揚げパンがおいしくて、みんなで食べました。その他にも、お店のおばさんが売り物の靴下を实际履いて、サイズを教えてくれたりと、その大胆な行動に驚きを感じました。私達が、市場で最も挑戦したかったのは、「値切り交渉」です。

日本で買い物をするときには値切ることはまずないので、貴重な経験をするためにも韓国語で「値下げしてください」「お願い」「おまけをつけてください」という言い回しを覚え、練習しました。なかなかうまくいきませんでした。成功したときには面白さを感じました。また市場では、ピンが二本で1万ウォンと言われ、1万ウォンは日本円にして大体1000円ちょっとなのですが、1000ウォン～5000ウォン（100円～500円）に慣れていたので、「高い!」と思いました。しかし、日本に帰ってきてからお店で似たようなピンを見つけ、値段を見てみるとなんと1本1000円以上していました。日本の物価の高さを実感しました。

そして、スーパーの袋は買わ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のが1番驚いたことです。日本ならタダでもらえるものをどうしてお金を払うのかと思っていましたが、“ゴミを増やさない”という環境問題の点から考えるとこのシステムは非常によいものだと思います。日本

では、自分で買い物袋を持ってくるとそれなりの特典がありますが、やはりタダでもらえるためそのような意識は低く、買い物袋を持っている人をあまり見かけませんが、お金を払って袋を買わないといけないとなると皆袋を持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うすれば、日本も少しはゴミが減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한국에서의 쇼핑

국제이해교육과정 일본어교육코스

2학년 가미야 사치요

연수 여행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여러곳에서 쇼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돈은 1000 원(약 100 엔)짜리로 부터 지폐로 되어 있어, 리치한 기분으로 쇼핑할 수 있었습니다. 면세점이나 지하가는 일본과 그다지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간판등이 아니면, 외형이나 분위기도 일본과 비슷하였습니다. 특히 지하가는 가게가 빼곡히 들어있고, 비좁음과 상품 진열은 일본과 꼭 같았습니다.

부산 국제 시장에는 보통 가게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고객이 많은 탓인지 일본어로 쓰여진 간판도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으셔서, 쉽게 적응 되었습니다. 또, 포장마차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마쯔리>> 때 밖에 볼 수 없으니까 매우 흥분되는 기분이 었습니다. 특히 튀김 빵이 맛있어서, 모두들 함께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 가게의 아줌마가 모델로 상품인 양말을 신어, 사이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대담한 행동>>에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에서 가장 도전하고 싶었던 것은, 값을 깎는것 입니다. 일본에서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귀중한 경험을 하기 위하여 한국어로<<좀 싸게 주세요>>, <<부탁해요>>, <<서비스 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좀처럼 잘되지 않았지만, 교섭이 성공되었을 때에는 즐거웠습니다. 또 시장에, 머리핀 2 개가 1 만원이 였는데 , 1 만원은 일본엔으로 대개 1000 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000 원~5000 원(100 엔~500 엔)짜리 상품에 습관되었기에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 일본에 돌아오고 나서 우연이 한 가게에서 비슷한 머리핀을 발견했는데, 가격을 보니 무려 1 개에 1000 엔 이상을 하고 있어, 일본의 높은 물가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의 주머니는 그냥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사야하는데 대해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서비스로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환경 문제로 부터 출발한 이 시스템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 합니다. 일본에서도, 스스로 쇼핑주머니를 가져오면 그에 따르는 좋은점이 있으나, 그냥 받을수 있기에 쇼핑주머니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해 주머니를 산다고 하면 모두들 가지고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도 조금은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買い物

初等教育教員養成課程 理科専攻

2年 宮田 佳代子

釜山で私は国際市場を訪れました。そこは日本にはない風景で、私が韓国を訪れた中で一番韓国を感じる事ができた気がします。店は車が通れないような細い道を挟んで向かい合って並んでいました。店は所狭しとあって、ずっと先まで続いていました。店の奥から店の先まで商品が並べられていて、店からあふれそうなくらいでした。昔からの店には伝統の民芸品が売っている店や、韓国のりの店から若い人向けの服の店までいろいろでした。日本では見ない光景で、すごく面白かったのは、靴屋で靴がのれんのように連なって店先に連なっていたことです。ほかにも店と店の間の道に屋台が並んでいたりしました。屋台は食べ物ばかりではなく、キャラクターの小物や、キーホルダやアクセサリー、靴下の店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食べ物屋では韓国のおでんやトッポキ、キムパプ、キムチなど韓国伝統の料理が並んでいます。晋州で買い物に行ったときにすこしおなかが減ったので屋台でトッポキを食べました。おばちゃんの目の前にトッポキやおでんなどが並べられていて、私たちがトッポキを頼むとそこからトッポキをお皿にくれて、それを屋台の前で、みんなで食べました。自由におでんの汁も飲んだりできるようでした。周りは普通に服や



化粧品が売っているお店があるのにそこに屋台が溶け込んでいて不思議な感じでした。しかし屋台は買い物でおなかが減ったお客さんでにぎわっていました。

国際市場を歩いているとたびたび日本語で話しかけられました。それもすごく上手な日本語で呼びこみをしていたのです。彼らはすぐ日本人と韓国人を見分けると、日本語で話し

かけてきました。また、よく日本語で書かれている看板があつたりして日本人を買い物客のターゲットにしていました。私が靴下を買おうとしたところの中に、一人のおばちゃんがやっているお店がありました。どうしても買ってほしくて、はいて履き心地のよさを伝えてくれたお店の人がいました。商品をはいて実証してくれるなんておどろきました。

またスーパーは日本とそんなに大きくは変わらないけれど、唐辛子が何キロの単位で売られていました。本屋では日本の漫画がハングルで書かれていておもしろいと思った。ま

た、絵本はこれからハングルを読めるようにしようと思って買いました。

買い物は一番韓国の人の暮らしが見えた気がしました。少し日本と違って面白かったし、周りの風景を見ていると韓国に来ているなという実感が湧きました。最後にみんなが残ったお金を出し合ってハングルの書かれたキーホルダを買いました。少し足りなかったのですが、カッカジュセヨ～と喋ってもらいました。こうしたやりとりや、買い物をする事で町の人と触れ合うことができました。

쇼핑

초등교육교원양성과정 이과전공

2학년 미야타 카요코

부산에서 국제 시장을 찾아 보았 습니다. 일본과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서, 제가 한국을 방문한곳 가운데 제일 인상적이 었습니다.가게는 길을 사이에 두고, 양옆에 줄지어 있었습니 다.가게의 안에서 부터 밖에까지 상품이 넘칠 정도로 많았습니 다. 전통적인 민예품을 팔고 있는 가게, 한국김 가게, 옷 가게 등등 여러 가지 었습니 다.일본에서 전혀 상상 못할정도로 재미있었던 것은, 신발가게에 신발이 포럼 같이 늘어져 있는 것입니 다.그 밖에 가게와 가게 사이에 포장마차가 줄지어 있었습니 다.포장마차는 음식 뿐만이 아니라, 캐릭터 완구나, 키 홀더나 액세서리, 양말등 가게들이 있었습니 다.음식 포장마차에는 한국의 오뎅이나 떡볶이, 김밥, 김치 등 한국 전통 요리가 줄지어 있었습니 다.진주에서 쇼핑하러 갔을 때에 배가 고파,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 다.아침마는 떡볶이나 오뎅을 직접 만들어서 진열해 놓으면서, 주문을 부탁받으면 직접 접시에 집어 주었습니 다.우리들은 포장마차 앞에서 떡볶이를 주문해 먹었습니 다.오뎅 국물은 자유로 마실 수 있었습니 다.포장마차 주위에 옷이나 화장품을 파는 가게가 있어 포장마차의 존재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 다. 하지만 쇼핑으로 지친 손님들로 포장마차는 붐비고 있었습니 다.

국제 시장을 거닐 면서 몇번이고 일본어로 말을 건네 받았습니 다. 능숙한 일본어로서 었고 ,또한 일본인과 한국인을 분별할 수 있는 것같았습니 다.시장에는 또, 일본어로 쓰여져 있는 간판도 있었는데 틀린 곳도 있어 재미있었습니 다.제가 양말을 사려고 선택하는데, 주인은 직접 양말을 모델로 신어 보여 준데 대해 놀랐습니 다.

또, 슈퍼는 일본과 비슷 했지만, 고추를 킬로를 단위로 하여 팔고 있었습니 다.책방에는 일본 만화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 읽어 보려고 몇권 샀습니 다.

쇼핑은 한국인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좋은 체험이 었습니 다. 일본과 다른 점이 재미있었고, 주위의 환경이 한국에 와있다는 것을 푸근히 느꼈습니 다.마지막에 모두 남은 돈을 합쳐서 한글이 쓰여진 키 홀더를 샀습니 다.조금은 모자랐으나, 부탁해서 좀 싸게 살수가 있 었습니 다.이러한 교섭으로 쇼핑을 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었습니 다.

仏国寺、石窟庵

中等教育教員養成課程 英語専攻

4年 渡邊 絵梨奈

私たちは、慶州の二つの世界重要文化財を嶺南大学校の学生さん達と一緒に訪れました。まず初めに、仏国寺について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仏国寺は、今から約 1500 年前の西暦 528 年に創設されました。しかし、1593 年に壬申倭乱（文禄の役）で全ての木造建物が燃えてしまいました。その後、1969～1973 年までの大々的な補修工事で元の姿を取り戻し、石窟庵と共にユネスコの世界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仏国寺の中には韓国の貨幣にも描かれている多宝塔と釈迦塔という二つの塔があります。この二つの塔には悲しい伝説が残されています。伝説の中に登場するアサダルという夫とアサニョという妻の悲しいお話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多宝塔を完成した石工アサダルは多宝塔に引き続き釈迦塔の製作を始めました。夫を待っていた妻アサニョが仏国寺のアサダルを訪ねましたが、僧侶は塔の完成に支障をきたすからと会わせてくれませんでした。アサニョは塔が完成すればその影が影池に映るという話を聞いて、毎日池ばかりを見つめていました。そうしたある日、明るい月が池を照らしながら、白い多宝塔が映って見えました。「アサダル様！」アサニョはあまりの嬉しさに、水の中に飛び込み、夫の魂がこもった塔を抱きました。恋しさに染みて塔の幻を見たのです。アサダルは塔を完成し、アサニョが待っているという話を聞いたので影池に行きましたが、すでに妻は冷たい死体になっていました。アサダルは狂ったように「私は芸術に狂ってあなたを忘れてしまった。これからは芸術も命もいらん。二度とあなたのそばを離れまい。」と最後の言葉を残して妻と死を共にしました。このことから影が映った多宝塔を有影塔、影が映らなかった釈迦塔を無影塔と呼ぶようになったそうです。



次に、石窟庵について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石窟庵は、西暦 751 年に創設されました。

しかし建立後の、李氏朝鮮による仏教弾圧により人々から忘れ去られていきました。1900年、がれきの中に埋もれていた石窟庵を発見したのは、山中で雨宿りをしようとした郵便配達人であったといえます。吐含山（トハムサン）という山の斜面をくりぬいた石窟庵の窟室には、崇高な釈迦如来座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手の形は、触地降魔印で悪魔の誘惑を退け、地に手をついて仏様の悟りを証明した瞬間を表すものです。また見る位置によって、頭光の位置が移り、立体的調和がな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30個の石釘がくさびのように打ち込まれて丸天障を支えている天井は丸く整ったアーチ形です。石釘が打ち込まれた模様もまた画一的ではなく、本尊仏から出てくる光があたかも日差しのよう天から広がった感じを与えています。

私はこの二つの文化財を嶺南大学校の学生である、ペ・ジョンソンさんと一緒に廻りました。ジョンソンは自分の国の歴史や建造物にとっても詳しく、たくさんのことを教えてくれました。私は歴史が苦手なので、ジョンソンにたくさん質問をしてしまいましたが、彼女はいつも笑顔で答えてくれました。とても親切に教えてくれた彼女にはとても感謝すると同時に、私は勉強熱心なところに関心してしまいました。もし私たちが日本の歴史や建造物について尋ねられたら、すぐに答え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私は、日本のことを外国の人たちに知ってもらうためにも、自分たちの国の歴史についてもっと知りたい、と研修に行って思いました。そして今度、韓国の友達が日本に来たときには、日本のことをたくさん教えてあげられるようになりたいです。

불국사, 석굴암

중등교육교원양성과정 영어전공
4학년 와타나베 에리나

저는 이 두곳 문화유산을 영남대학교 학생인 배준성씨와 함께 돌았습니다.준성씨는 자기 나라의 역사나 건물에 대해 매우 자세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저는 모르는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물었지만, 그 학생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우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 너무나 고마웠고, 한국학생들이 학습에 열심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우리한테 일본의 역사나 건물에 대해 물으면, 곧바로 대답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저는, 일본을 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나라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것을 학습하고 싶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한국 친구가 일본에 오면, 일본에 대해 많은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ソングァンサ
松広寺

国際理解教育課程 日本語教育コース
2年 平山 美彩子

私たちは、研修3日目に松広寺というお寺に晋州から高速道路を使い、1時間半かけて行きました。高速道路での、バスのスピードはとても速く、先輩から「高速道路では、シートベルトをしないとイケない」と聞き、納得しました。日本との大きな違いもここで感じることが出来ました。どのくらいの速さだったのか、とても興味深いです。

松広寺は、韓国三宝寺刹のひとつで、韓国仏教の僧脈を引き継いだので僧宝寺刹といわれています。仏教において大変貴重で尊い三宝はお釈迦さま（仏）、教え（法）、僧家（僧）であり、その三宝にちなみ、韓国三宝寺刹（通度寺・海印寺・松広寺）があります。



門(左の写真)には、4体の像があり、それぞれ別の力を持ち、守っているそうです。中心となる大雄宝殿の中に入ると、右の写真のようにまず、大きな3体の仏像が目に入ります。この3体は右から順に過去、現在、未来を表しています。端から間を挟むように4体の菩薩がたっていて、その裏には、釈迦の骨の舎利が納められていました。

側面3面には絵があり、お釈迦さまがなくなったとき弟子だけでなく動物たちも嘆いているようすが描かれていたり、たくさんの僧が書かれている絵もありました。

松広寺を訪れ、最も印象的だったことは、日本のお寺と違って茶色、緑、赤といった鮮やかな色彩を使っていたことです。その色は、丹青(タンジョン)というそうで、屋根の梁などに見られます。本来は木材の腐食を防ぐためのものでしたが、やがて王宮や寺院といった特別な建物に描かれました。日本と全く違う色をした独特な雰囲気の中、仏教や松広寺の説明していただき、知らなかったことが多く、とても勉強になりました。

송광사

국제이해교육과정 일본어교육코스
2학년 히라야마 미사코

일본의 절과는 달리 갈색, 녹색, 빨간색 등 선명한 색채를 사용한것이 매우 인상적이였습니다.일본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불교,송광사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徐載弼記念館訪問

情報教育課程 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コース

3年 岡村 聡子

まず、徐載弼という人物について紹介しようと思う。

1866年：全羅南道宝城に生まれる。

わずか13歳で科挙¹に合格。

日本留学生にも選ばれ日本にも留学する。

その後、金玉均らと、甲申政変²を起こすが、失敗する。

日本に亡命した後、アメリカに渡り、医学を学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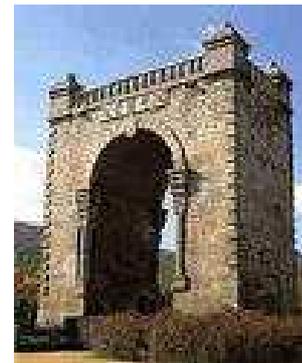
卒業後アメリカの市民権を取り、アメリカ人女性と結婚。

1896年：帰国。韓国初の近代新聞「独立新聞」を発刊する。

{ 4ページのタブロイド版
週に三回 300部発行
最初の3ページは韓国語、残りの1ページは英語。

また、彼は、独立門を立てた。彼はパリの「凱旋門」をモデルにしている。ナポレオンがパリの世界一の首都にするために、凱旋門を建てたように、祖国の独立を目指す事を目的としていた。残念だが、この記念館を訪れる際、時間を十分に取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この記念館を訪れるまで、この人物について、よく知らなかった上に、説明を十分に聞くことが出来なかったため、帰ってから、私は彼のことや、この独立門が立てられるまでの事をもっと知りたいと思った。そして、きちんとした知識を持って、もう一度、この記念館を訪れたいと思う。

(KBS WORLD Radio HP を一部参照 <http://rki.kbs.co.kr/japanese/index.htm>)



서재필 기념관 방문

정보교육과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코스

3학년 오카무라 사토코

시간이 없어 기념관을 천천히 참관할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기념관을 방문하기전까지 이 인물에 대해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 그의 역사와 독립문을 세우게 된 경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하여 다시 한번 이 기념관을 찾아 보고 싶습니다.

¹ 科挙：中国で598年～1905年、即ち隋から清の時代まで行われた官僚登用試験である。

朝鮮半島の高麗や李氏朝鮮でも、中国式の科挙制度が導入されていたが、貴族層しか受験できなかった。

² 甲申政変：1884年12月に朝鮮で起こったクーデター。

国立金海博物館

初等教育教員養成課程 理科専攻

2年 清水 梨沙

私は研修7日目の9月11日に見学に行った、金海博物館について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金海博物館の場所は、慶尚南道金海市です。金海市は、釜山の近くでとても日本に近い場所にあります。博物館の観覧料金は大人25歳以上で400ウォン、日本円で約40円です。このように韓国の博物館は観覧料金が安いという面で、日本の博物館より気軽に行きやすいと感じました。博物館の展示品は、韓国の新石器時代から伽耶の時代、日本で言うと古墳時代の頃までの土器や剣、装飾品などがありました。

では、ここで展示品が多かった伽耶について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伽耶の前期は金官伽耶が中心、後期は大伽耶が中心で伽耶と呼ばれる周辺地域の国々をまとめて伽耶連盟と呼んでいます。伽耶は鉄の王国といわれていて製鉄がとても盛んでした。この製鉄技術は日本にも伝承し、多大な影響を与えました。伽耶の人々は新羅に攻められた際、日本の出雲（現在の島根県）へと逃げた人達もいるそうです。この時、伽耶の優秀な製鉄技術が日本に伝わり、日本の製鉄技術が発展したといわれています。その他にも、伽耶土器は須恵器に影響を与えるなど韓国の文化は日本へと伝わり文化面で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

次に、日本との当時の関係を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紀元前2世紀～紀元前1世紀には中国に朝鮮半島だけでなく倭のことも知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西日本の各地ではこの時代の朝鮮系の土器が多く出土しています。2世紀後半には朝鮮半島からの渡来人が継続して日本列島にやってきました。4世紀後半には高句麗の脅威に備えた百済と国交を結びました。その後、この百済との同盟関係により日本は朝鮮半島へ兵を繰り返し送りました。

このような背景をふまえて、金海博物館の展示品について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館内は幅広い時代の土器や剣、貝塚、装飾品などが展示されていました。日本で出土しているものととても形状が似ているものばかりだと感じました。また、ベルトの展示品があり金具部分が現在と全く同じ形でした。金具部分の形はこの時代にはもう出来上がっていたという事実に皆驚きました。装飾品は水晶やヒスイのようなものを多く使用していて、とても美しいと思いました。私は、時間をかけてゆっくり展示品を見ていました。しかし、後半に時間がもうあまり無いことに気が付き、後半の展示品をあまりじっくりと見る事ができなかったのが残念でした。

金海博物館は、2階建てで館内はとても広々としていました。時代順に展示してあるので特に土器はどんどん洗練されていく様子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出口の近くには、土器や版画を体験するコーナーが設けてありました。私達が行った時は、家族連れの方々がちょうど体験していました。また、博物館の出口を出ると、そこには広場のようなものが

あり、そこで子どもたちが楽しそうに遊んでいました。子ども達は、フラフープなどや見たことのないような遊びをしていました。駒をひもでたたいて遊ぶものや、シーソーに立って乗ってお互いが飛ぶことで動くものがありました。広場があることや、体験コーナーがあることで子どもにも来てもらいやすいように様々な工夫をしていると感じました。博物館をみて、日本と朝鮮半島との文化の交流を感じることができ感動しました。やはり他の国と比べて距離が近いので人々は行き来しやす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今回のように外国の博物館を見学することは、その国の歴史や文化を知るうえでとても良い方法だと思いました。

국립 김해 박물관

초등교육교원양성과정 리과전공

2학년 시미즈 리사

9월 11일, 연수 이레만에 김해박물관을 참관 했습니다. 한국에서 박물관 요금이 싸기에 일본보다 부담없이 쉽게 다닐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박물관에는 여러 시대의 도자기나 검, 조가비, 장식품 등이 전시 되어 있었는데 일본에서 출토 되었던 것과 형태가 비슷 하였습니다. 또, 벨트 전시품도 있었습니다. 벨트 금속 부분의 형태는 현재것과 매우 비슷 하였습니다. 금속 장식품들이 그 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장식품에 수정이나 비취 같은 것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시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1층 전시품을 충분히 볼 수가 없어 유감스러웠습니다.

김해 박물관은, 2층건물로서 관내는 매우 넓찍 하였습니다. 전시품들은 시대 순서에 따라 전시 되어 있었습니다. 도자기는 시대에 따라 세련 된 감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출구 부근에, 도자기나 판화를 조립하는 체험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한 가족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또, 박물관 출구를 나오면, 거기에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광장이나, 체험 코너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더 많은 아이들이 참관하게끔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을 참관하면서 옛날에도 일한교류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역시 다른 나라보다 일한 두나라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교류가 쉬이 진행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의 박물관 참관은 그 나라 역사나 문화를 인식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晋州城

国際理解教育課程 日本語教育コース
2年 谷 有希子

私達は研修 6 日目の 9/10 に晋州城・国立晋州博物館を見学しました。私はこの研修に参加する前、壬辰倭乱については教科書でさらっと習っただけで、晋州も晋州城の歴史についても知りませんでした。晋州城を見学する前に日本で歴史や逸話について少し調べておきました。見学して心に残ったことを述べたいと思います。

まず、入館したときに通った門の様子です。とても色彩が鮮やかだと思いました。日本の古い建築にも晋州城の門のようなつくりをしているものがたくさんありますが、日本では木材の部分に色はついていません。日本の古い建築の色彩は木材の茶色、瓦の黒、あとは一部が白く色づけされているくらいです。晋州城の門は赤、緑、黄など本当に色がたくさん使われていました。私は去年中国に行く機会があったのですが、中国の古い建物も韓国と同じように鮮やかに色づけされていたので、韓国の建物は日本よりも中国のものに似ていると思います。

博物館の敷地が非常に広く一面芝生でした。博物館は石造りでまだ新しくおしゃれでした。博物館の中はきちんと掃除されていてトイレも清潔にされていました。照明が間接照明になっていて独特の雰囲気がありました。入館料が日本円で 100 円もしなかったのは驚きでした。そんなに安くして博物館を運営できるのか、と疑問ですが誰でも博物館を利用できるように努力が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実際若い人がカップルやグループで博物館を利用しているのがよく目に付きました。日本では若い人が博物館を訪れる、ということは学校の課題でもない限りほとんどありません。日本の博物館の入館料が韓国の 5~10 倍するというのも原因のひとつですがもともと歴史や文化に対する関心が低いというのもあります。韓国の人々の歴史に対する認識、関心の高さを見習いたいです。

私は博物館を見学してだんだん心が痛みました。博物館を見学してこのように感じたのは初めてでした。しかし、多分韓国に到着したその日に見学していても大して何も感じ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私はこの博物館を訪れる前にすでにホームステイや小学校の訪問、大学祭に参加して学生との交流を経験していました。韓国でお世話になった人々は皆、私達が快適に楽しく過ごすことを第一に考えてくださいました。その 6 日間で私にとって韓国はただの隣国ではなくなっていました。400 年以上前の出来事であくまで歴史上のことという視点で見学していたのですが、お世話になった人々のことを考えると自分の国が昔行ったことが悲しくなりました。

見学中、忘れることができない光景を目撃しました。友達が現地の老人二人に「どこから来たのか。」と日本語で話しかけられ「日本から来ました。」と答えると二人はなんと「ありがとう。」と言ってくださったのです。私はそれを聞いた瞬間ハッとしました。二人が言

ってください言葉には重みがあり、見学をして本当に良かったと思いました。

国立晋州博物館を見学したことは日韓の歴史について改めて考えるきっかけとなりました。私は以前から過去の過ち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歴史から学ぶ必要があるとは思っていました。しかし日本と韓国の間には歴史の問題で衝突があります。それが両国の間で政治的に利用される時もあります。私は日本と韓国が交流していく上で、歴史問題が原因で交流がうまく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くらいなら、歴史を勉強しない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こともあります。しかし日本に帰ってきてから考えたのですが、もし私が韓国のことをもっと知りたい、深い交流をしたいと思うならやはりどうしても歴史について知る必要があります。例えば友達が 1 人いるとします。その人ともっと深い付き合いをしたいと思うなら、その人の過去や家庭環境、日頃何をどう感じるか、何を悩んでいるのかを知っている方が深い付き合いができ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日韓の関係も同じだと思います。歴史を知ることによってお互いのバックグラウンドを知り、そのことによって相手を知り、深い交流をすることにつながるはずです。日本人がもし韓国を知りたい、深く交流したいと願うなら、決して罪悪感からではなく自分自身の為を知るべきだと思います。

日本と韓国は歴史の問題を私達の親世代で解決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日本人は学校でそこまで歴史について教わらず、国の方針も必ずしも過去と向き合おうと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為向き合ったときの辛い思いや罪悪感、反省を若い世代が経験しないで済んだ代わりに問題はまたそのまま横たわっています。私はもっと未来志向で韓国の歴史を学び、韓国もまたぜひ訪れたいと思います。

진주성

국제이해교육과정 일본어교육코스

2 학년 타니 유키코

저희들은 연수 옛새되는 날인 9 월 10 일에 진주성-국립진주박물관을 참관 했습니다. 저는 역사에서 임진왜란에 대해 배웠을 뿐 진주와 진주성에 관해서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아래 박물관 견학에서 느낀 것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 입구의 대문은 색채가 선명하였습니다. 일본 옛날 건축 구조와 비슷하였으나 일본에서는 나무 부분에 색칠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옛날 건물은, 목재 원래의 갈색과, 기와의 검은색, 일부분이 흰색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진주성의 문은 적,녹,황등 여러가지 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중국에 갔을 때 보았던 중국의 옛날 건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안은 매우 넓직하였고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훌륭한 박물관이 있었습니다.돌로 된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박물관안은 깨끗하여 정결감을 주었고, 화장실도 깨끗하였습니다.조명은 간접조명으로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입관료가 100 엔도 안되는데 대해 매우 놀랐습니다. 이렇게 싼 입관료로 박물관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고도 생각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있다고 생각 합니다.젊은 커플들이나 그룹이 박물관을 참관하는것이 였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박물관에 그다지 다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과제가 있을 때만이, 어쩔 수 없이 다닙니다. 그리고 일본 박물관의 입관료는 한국의 10~15 배나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젊은 이들이 역사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는것도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한국인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따라 배우고 싶습니다.

박물관을 참관하면서 점점 어깨가 무거워 졌습니다. 박물관을 참관하면서 이처럼 느껴보기는 처음이 였습니다.만약 한국에 오는 첫날에 박물관을 참관했다라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섯날 동안 많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많은것을 인식했고 우리들을 편히 ,즐겁게 해주기에 힘쓰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 전혀 이국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그냥 역사유물을 보기위한 참관이였으나, 400 년전 진주성에서 벌어진 역사사실을 들으면서 슬퍼졌습니다.

참관하는 도중에 노인 두분이 함께 간 친구에게 일본어로 어디에서 왔는가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고맙네>>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였습니다.우리들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어깨가 무거워짐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견학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박물관 참관을 통하여 역사에 대해 새롭게 인식 하게 되었습니다. 줄곧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사이에 역사적 문제로 부터 정치적 문제로도 발전하니까 역사를 배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 였습니다. 더 넓은 범위내에서의 교류는 역사 학습이 필요 했습니다.진정한 친구를 사귀려면 그친구의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일한 두 나라의 교류도 마찬가지로 서로간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역사 문제는 저희들의 부모세대에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인은 학교에서 역사를 상세하게 배울수 없습니다. 나라의 방침도 과거와 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젊은이들은 과거에 대해 죄악감, 괴로움을 느끼거나, 반성하거나 하지 않으므로 역사문제는 그냥 그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미래를 위하여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꼭 한번 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